

등록번호	공동체팀-832
등록일자	2016.06.27.
결재일자	2016.06.27.
공개구분	공개

결재	★과장	공동체팀장	여성정책실장	대표이사
	임경진	김창연	조영미	06/27 강경희
협조				

「2016 여기서 찾다」  
아동학대 대응 미니정책박람회  
결과보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6 여기서 찾다」 - 이동학대 대응 미니정책박람회 서울시 아동학대, 지역사회와 대응한다!

## I 추진목적

-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14년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학대 발생은 줄고 있지 않으며, '15년도 실시한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실태 전수조사로 묻혀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남으로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4년 종합대책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할 의지를 밝혔음.
- 서울시 역시 '15년도 말부터 장기결석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6년도 1월 '아동학대 상시점검 및 예방체계 확립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 분석 및 상시점검 실시, 시-자치구-교육청-학교간 유기적 연계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서울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는 물론, 아동학대 예방, 아동이 원가족 복귀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과 가족의 활동 공간에 밀착한 **지역 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가 필요함.
- 최근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 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개입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는 아동학대 대응 전과정에 찾동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이에 지역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서울의 지역사회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터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와 관련 정책의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

## II 사업 개요

- 제목 : 서울시 아동학대, 지역사회와 대응한다!
- 일정 : 2016.05.24.(화)~06.25(토)
- 대상 : 관련 기관 전문가, 자치구 관계자 및 시민
- 프로그램

토론회	지역밀착형 아동학대 대응 현장사례 공유 및 토론회
전시	커뮤니티 기반 아동학대 예방·대응 해외 사례 전시

### Ⅲ

## 추진내용 ① 현장 사례 공유 및 토론회

- 제목 : 서울시 아동학대, 지역사회와 대응한다! - 현장사례 공유 & 토론
- 일정 : 2016.05.27.(금) 15: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 대상 : 관련 기관 전문가, 자치구 관계자 및 시민 총 102명
- 내용

구분	내용	
사회	○○○, ○○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사례 발표 (15')	지역사회 초기대응 시스템	1 아동문제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동네를 위해 - 성북구 아동보호 통합체계 구축사례 - 발표자 : ○○○
	지역사회 자원연계	2.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들의 안전망 조성 -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 발표자 : ○○○
	지역사회 지속관리	3.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을' 이 되려면? - 원가족복귀( 및 비분리) 지속관리 사례와 비전 - 발표자 : ○○○
함께토론	- ○○○, ○○○센터장 - ○○○, ○○○센터장 - 질의응답 & 플로어 토론	

### □ 토론회 주요 내용 요약

- 발표①②③ : ※ 각 발제문 별첨 자료집 참조
- 토론①(○○○ ○○○센터장) : ※ 토론문 별첨
- 토론②(○○○ ○○○센터장)
  - 그간 마을공동체가 서울에 복원되기 위한 시도를 해 왔음. 지금은 마을은 무엇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는가, 관계망 자체가 여러 사회적 기능을 담을 수 있는가 등의 고민을 하는 시기임. 공동체를 단순히 호혜적 관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함.
  - 정확한 문제 인식, 서로를 민감하게 돌아보는 관점에 대해 센터가 민감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음. 마을 안의 관계망이 은폐가 아닌 '드러내기', '민감해지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함.
  - 폭력·안전 문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행정은 협업을 통해 통합 체계를 갖추고 민간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인적 관계망을 만들고 문제 해결이 공동체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주민 모임 하나하나가 인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램.
  - 주민커뮤니티 안에서 육아를 위한 커뮤니티의 비율이 가장 높음. 주민 커뮤니티가

생성·발달될 때 가정폭력·아동학대 문제를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을까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

- 전국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임.

○ 플로어 토론

- 원가정 복귀를 무조건 최종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위탁가정을 찾아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발제가 주로 취약계층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중산층, 고학력, 전문직 등 부모가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학대는 은폐되고, 신고도 어렵고 개입하기 어려움.

- 연령중심 아동 복지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성장기에 아동학대를 겪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임. 적은 비용으로 상담을 해 주는 센터가 필요함.

- 사회가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정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음. 초경쟁적인 우리 사회가 학대를 유발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 미혼모의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학대 사실과 원인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행위자가 미혼모라는 지점에 시선이 더 쏠리곤 함. 미혼모, 취약계층이 아동학대의 주범이라는 편견을 극복해야 함. 또한 지역사회를 통한 해결이라고 할 때, 미혼모는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현실임을 인지해야 함.

- 현재 지역사회의 역할이 미비할 지라도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의 관심 자체가 학대 행위를 위축 시키는 감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의 일환으로 강조하는 것임.

**IV 추진내용 ② 해외 사례 전시**

- 제목 : 한 아이를 지키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대응 지역사회 안전망 해외 사례 전시
- 일정 : 2015.05.24.(화)~06.25(토)
- 내용 ※ 세부 내용 별첨 자료집 참조

미국	커뮤니티기반아동학대예방(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CBCAP) 우수지역 - 네브라스카 커뮤니티 예방 시스템 - 하와이 Family Hui Hawaii - 펜실베니아 Parent to Parent of Pennsylvania - 사우스캐롤라이나 PASOs
영국	지역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 우수지역 - 데본 & 토베이 MASH - 런던 바킹-다겐햄 지구 Young People's Safety Group - 셰필드, 청소년과 협업을 통한 정책 변화
유럽	Euro Child 우수지역 사례

	- 벨기에 플랜더스 & 브뤼셀 The Parenting Shop -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The Centre for Youth and Families & SPIL Centre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Keep Them Safe



## V 평가 결과

- 평가 방법 : 토론회 참가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 평가 결과 ※ 5점 척도

항목	만족도(평균)
토론회 만족도	4.11
주제 이해에 대한 만족도	3.93
진행방식과 시간	3.64
행사 전체 만족도 (토론회·전시)	3.96

### ○ 참가자 의견

좋았던 점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 센터장 발언 중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영역이자, 성인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꼭 필요한 포인트를 집어준 것이 좋았음.</li> <li>- 다양한 실제적 사례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li> <li>- 아이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한 사례들</li> <li>- 아동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됨</li> <li>- 해외 사례 전시가 좋았음</li> <li>- 발제자 선정의 적정성</li> <li>- 마을 공동체에 대해 실무자를 통해 알게 되었음</li> <li>-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이 부족했음 (3시간 정도 필요할듯함)</li> <li>- 발표자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li> <li>- 플로어 토론 시간이 짧았음.</li> <li>- 지역사회 대응에 대한 사례가 보다 많았으면 좋겠음.</li> <li>- 사례발표 시간 조절이 느슨했음.</li> <li>- 아동이동 간 학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되었으면 함.</li> <li>- 각 사례별로 개입 관련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음</li> <li>-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플로어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았을 것임</li> <li>- 학대 발생시 실제 진행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 아쉬웠음.</li> </ul>

□ 모니터링 결과

○ 토론회

좋았던 점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문제를 가족 전체와 공동체 치유의 문제로 생각을 넓힐 수 있었음.</li> <li>-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토론할 수 있어 좋았음.</li> <li>- 최근의 구체적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li> <li>- 각 기관들의 역할과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에 비해 시간이 짧았음.</li> <li>- 마이크 소리가 작았음</li> <li>-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 보다 다양한 기관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함</li> <li>- 발표·토론자들이 정해진 시간을 지켰으면 함</li> </ul>

○ 전시

좋았던 점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가정 단위에서 공동체·지역의 문제로 영역이 확대되어 사회 문제에 대한 방임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와 책임을 위한 시스템 모델을 볼 수 있었음.</li> <li>- 선진국 우수사례들을 보며 차별없는 복지 시스템을 볼 수 있었음</li> <li>- 토론회 타이틀과 연관된 해외사례를 볼 수 있어 좋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장소가 토론 무대와 너무 가까워 감상하기 편하지 않았음</li> <li>- 영미권 사례에 비해 유럽 사례가 적었음</li> </ul>

